▣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으로 명령형 종결 어미나 문장 끝의 억양에 의해 실현된다.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령문 자체가 청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문장이라서 자연스럽게 청자가 주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자가 여러 명이면서 각각의 청자에게 다른 행동을 요구할 경우 주어를 표시해 주기도 한다.

명령문을 만드는 명령형 종결 어미로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의 '-(시)ㅂ시오', 하오체의 '-(시)오', '-구려', 하게체의 '-게', 해라체의 '-아라/-어라/-거리', '-(으)렴', '-(으)려무나' 등이 있다. 한편 비격식체인 해요체의 종결 표현 '-(세/셔)요', 해체의 '-아/-어', '-지'는 명령문을 만들 때도 사용되지만 형태만으로는 어떤 종결 표현을 나타내는 것인지 문장의 유형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문장의 앞뒤 맥락과 문장 끝의 억양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판단해야 한다. 명령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은 문장 끝의 억양을 강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

명령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 가운데 '-(으)라'는 다른 명령형 종결 어미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다. '-(으)라'를 사용한 명령은 주로 대면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대면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거리가 있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격식적이고 간접적인 명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외의 명령형 종결 어미들을 사용한 명령은 청자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 하는 직접 명령이다.

명령이나 요청의 뜻을 전달할 때 명령문을 사용하면 그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명령은 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화자는 청자의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명령이나 요청의 뜻을 전달한다. 우선 ⓑ명령문의 끝에 '-아/-어 주다'와 같은 보조 용언 구성을 결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는, 직접적인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령문 대신 다른 종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대의 의향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해 권유나 제안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평서문으로 요청의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또는 ⓔ명령문 대신 청유문으로 제안의 뜻을 전할 수도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내일 아침 8시에 깨워 주세요.
(나) 영희는 설거지 좀 해 주고, 민수는 방을 좀 청소해 줘.
(다) 선생님, 이 곶감 좀 드셔 보세요.
(라) 제주도에서는 고등어 회를 먹는대요.
(마) 정부는 복구 대책을 속히 마련하라.

① (가)는 청자가 곧 이 명령문의 주어이므로 굳이 주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군.
② (나)는 복수의 청자에게 각각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어를 표시한 것이군.
③ (다)는 해요체의 명령형 종결 표현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된 문장이군.
④ (라)는 해요체의 종결 표현이 쓰인 문장이므로 문장 끝의 억양을 내리면 명령문이 되겠군.
⑤ (마)는 '-(으)라'가 사용된 명령문이므로 청자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 하는 직접 명령은 아니겠군.

2. 윗글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거기 말고 여기에 앉으십시오.
② ⓑ : 이번 주 안에 꼭 말씀해 주세요.
③ ⓒ :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할까요?
④ ⓓ : 다음부터는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⑤ ⓔ : 자습 시간에는 제발 조용히 좀 합시다.

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과 ㉡으로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1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 비중을 기준으로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대등 합성어란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의미 비중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합성어를 말한다. 한편 종속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의 의미 비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한 성분이 다른 성분을 수식하며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는 합성어를 말한다.

보 기2

고무신, 논밭, 높푸르다, 돌다리, 아들딸, 할미꽃

	㉠	㉡
①	고무신, 논빝, 아들딸	높푸르다, 돌다리, 할미꽃
②	고무신, 높푸르다, 돌다리	논밭, 아들딸, 할미꽃
③	논밭, 높푸르다, 아들딸	고무신, 돌다리, 할미꽃
④	논밭, 돌다리, 아들딸	고무신, 높푸르다, 할미꽃
⑤	논밭, 아들딸, 할미꽃	고무신, 높푸르다, 돌다리

4. <보기>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닭만[당만]
㉡ 잃는[일른]
㉢ 짓이겨[진니겨]

① ㉠, ㉡에서는 탈락이 일어나고 남은 음운으로 인해 교체가 일어났군.
② ㉡에서 교체가 일어나는 음운과 ㉢에서 첨가되는 음운은 서로 같군.
③ ㉠, ㉡과 달리 ㉢에서는 음운 변동이 세 번 일어났군.
④ ㉠~㉢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군.
⑤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5.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중세 국어에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일인칭)일 때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가 있었다. 선행 요소에 따른 이 문법 형태소의 이형태는 아래와 같다.

'-오-' 바로 앞 요소	'-오-'의 이형태
양성 모음의 용언 어간	'-오-'
음성 모음의 용언 어간	'-우-'
서술격 조사 '이-'	'-로-'

한편 '-오-'에 의해 뒤에 오는 어말 어미가 다른 이형태를 가지는 일도 있었다. 평서형 종결 어미 '-다'는 선어말 어미 '-오-' 뒤에서 이형태 '-라'로 나타났다. 또 '-오-'는 선행하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결합형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오-' 바로 앞 요소	앞 요소+'-오-' 결합형
동사 어간 'ᄒᆞ-'	'-호-'
현재 선어말 어미 '-ᄂᆞ-'	'-노-'
과거 선어말 어미 '-더-'	'-다-'
현재 완료의 선어말 어미 '-거-'	'-과-'

중세 국어에서 일인칭의 선어말 어미 '-오-'가 쓰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 **내 利師跋王ㄱ** (㉠)[ᄉᆞᆯ+이-+-오-+-다]
[내(가) 이사발왕의 딸이다.]

○ **(내) 北天竺에** (㉡)[도라가-+-ᄂᆞ-+-오-+-다]
[(내가) 북천축에 돌아간다.]

○ **나ᄂᆞᆫ 渡頭ㅅ 믈애예** (㉢)[자-+-더-+-오-+-다]
[나는 도두의 모래에서 잤다.]

○ **곳 디ᄂᆞᆫ 時節에 ᄯᅩ 너를** (㉣)[맛보+-거-+-오-+-다]
[(내가) 꽃 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만나는구나.]

	㉠	㉡	㉢	㉣
①	ᄊᆞ리로라	도라가노라	자다라	맛보과다
②	ᄊᆞ리오라	도라가노라	자다다	맛보가라
③	ᄊᆞ리로라	도라가노다	자다다	맛보과라
④	ᄊᆞ리로다	도라가노다	자다라	맛보가라
⑤	ᄊᆞ리로라	도라가노라	자다라	맛보과라

정답 및 해설

1) 답 ④ [명령문의 실현 방법과 특징] 해 (라)의 '제주도에서는 고등어 회를 먹는대요.'라는 문장은 해요체 종결 어미를 사용한 문장으로 문장의 끝에 어떤 억양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장 끝의 억양을 내리면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평서문으로 쓰이고, 문장 끝부분의 억양을 올리고 물음표를 해 주면 의문문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맥적 의미상 청자에게 고등어 회를 먹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요체의 종결 어미가 사용된 문장이라고 해서 문장 끝의 억양을 내리면 명령문이 된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 ① (가)의 '내일 아침 8시에 깨워 주세요.'는 청자가 곧 명령문의 주어이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② (나)의 '영희는 설거지 좀 해 주고, 민수는 방을 좀 청소해 줘.'는 복수의 청자 각각에게 다른 행동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명시해 준 것이다. ③ (다)의 '선생님, 이 곶감 좀 드셔 보세요.'는 해요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한 것이다. ⑤ (마)의 '정부는 복구 대책을 속히 마련하라.'는 종결 어미 '-(으)라'를 사용한 문장이다. 이러한 종결 어미를 사용한 명령문은 대면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대면한다고 해도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정한 공식적인 거리가 있는 격식적인 명령인 경우가 많다. 즉, 청자를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간접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2) 답 ③ [명령이나 제안, 요청을 나타내는 문장] 해 ㉢는 상대의 의향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해 권유나 제안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할까요?'라는 문장은 설명 의문문으로 실제로 청자에게 몇 시에 출발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즉, 권유나 제안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이나 요청의 뜻을 드러내는 의문문이 아니다. 오 ① '거기 말고 여기에 앉으십시오.'는 하십시오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직접 명령의 명령문이다. 이러한 명령문은 자칫 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 ② '이번 주 안에 꼭 말씀해 주세요.'는 해요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명령문인데, 본용언 '말씀하다'에 '-아/어 주다'를 결합하여 '말씀해 주세요'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④ '다음부터는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는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평서문이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다음부터는 늦지 마십시오.'라는 명령 혹은 요청의 뜻을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⑤ '자습 시간에는 제발 조용히 좀 합시다.'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청유문이다. 그런데 이 발화는 청자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는 뜻을 전달하는 발화이다. 즉, 청유문을 통해 요청, 제안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3) 답 ③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 해 '논밭, 높푸르다, 아들딸'은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 비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대등 합성어이다. 그러나 '고무신, 돌다리, 할미꽃'은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선행 성분이 후행 성분의 의미를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4) 답 ① [음운 변동의 이해] 해 ㉠의 '닭만'은 '닭'의 종성의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닥만/이 되고, '만'의 'ㅁ'에 의해 '닥'의 종성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당만]으로 발음된다. ㉡의 '잃는'은 '잃'의 종성의 겹받침 'ㄽ' 중 'ㅎ'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일는/이 되고, 겹받침 'ㄽ' 중 남은 'ㄹ'에 의해 바로 뒤 음절 '는'의 초성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교체)가 일어나 [일른]으로 발음된다. ㉢의 '짓이겨'는 '짓'의 종성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되어 /짇이겨/가 되고, 두 번째 음절의 '이'에 'ㄴ'이 첨가되어 /짇니겨/가 되며,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첫음절의 종성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진니겨]로 발음된다. ① ㉠, ㉡에서는 탈락이 일어나고 남은 음운으로 인해 교체가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은 'ㄽ' 중 남은 'ㄹ'에 의해 바로 뒤 음절 '는'의 초성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적절한 설명이지만, ㉠은 두 번째 음절인 '만'의 'ㅁ'에 의해 '닥'의 종성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 ② ㉡에서 교체가 일어나는 음운은 'ㄴ'이고 ㉢에서 첨가되는 음운도 'ㄴ'이므로 이는 적절한 설명이다. ③ ㉠과 ㉡은 각각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만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 ㉡과 달리 ㉢에서는 음운 변동이 세 번 일어났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 ㉡은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은 'ㄴ' 첨가(첨가)가 일어났으므로 ㉠, ㉡, ㉢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 ㉢은 비음화가 일어나고 ㉡은 유음화가 일어나는데,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다.

5) 답 ⑤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오-'의 다양한 실현 방식] 해 ㉠은 [ᄉᆞᆯ+이-+-오-+-다]인데 서술격 조사 '이-' 뒤의 '-오-'의 이형태가 '-로-'이며, 종결 어미 '-다'는 형태소 '-오-' 뒤의 이형태가 '-라'이므로 'ᄉᆞᆯ+이-+-로-+-라'로 이것을 연철한 'ᄊᆞ리로라'로 나타나게 된다. ㉡은 [도라가-+-ᄂᆞ-+-오-+-다]로 역시 '-ᄂᆞ-+-오-'의 결합형이 '-노-'이며, 종결 어미 '-다'는 형태소 '-오-' 뒤의 이형태가 '-라'이므로 '도라가노라'로 나타나야 한다. ㉢은 [자-+-더-+-오-+-다]인데 '-더-+-오-'의 결합형이 '-다-'이며, 종결 어미 '-다'는 형태소 '-오-' 뒤의 이형태가 '-라'이므로 '자다라'로 나타나야 한다. ㉣은 [맛보+-거-+-오-+-다]인데 '-거-+-오-'의 결합형이 '-과-'이며, 종결 어미 '-다'는 형태소 '-오-' 뒤의 이형태가 '-라'이므로 '맛보과라'로 나타나야 한다.